

8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닷새만에 하락..다우 0.42%↓	뉴욕 증시가 5일(현지시간) 하락세로 마감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지표들이 기대치를 밑돈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다우 지수는 9,200대로 밀렸고, 나스닥 지수는 2,000선을 내렸음. 다만 S&P500 지수는 가까스로 1000선을 지켜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39.22포인트(0.42%) 하락한 9,280.9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26포인트(0.91%) 내린 1,993.05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2.93포인트(0.29%) 떨어진 1,002.72에서 장을 마쳤음. 전일 연중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던 뉴욕 증시는 이날 챌린저그рей 앤크리스마스와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각각 발표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음.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제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했음. 특히 이틀뒤 발표되는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음. 이어 발표된 구매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밖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주요 지수는 낙폭을 확대했음.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지수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음.
고용보고서 앞두고 고용지표 악화	고용조사업체인 ADP는 미국의 7월 민간부문 고용이 37만 1,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명 감소를 크게 웃돈 감소폭임. 다만 전월의 46만 3,000명 감소에 비해서도 완만해졌음. 앞서 재취업 알선업체인 챌린저그рей 앤크리스마스는 7월 미국 기업들의 해고 발표가 전월대비 31% 증가한 9만 7,373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들의 해고가 전월대비로 증가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만에 처음임. 잇따른 고용지표 악화는 오는 7월 발표되는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고 있음.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9.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서비스업 예상밖 위축 가속도	미국 구매관리자협회(ISM)는 7월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가 46.4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월 47.0보다 낮아진 것으로, 서비스업의 위축속도가 다시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함.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음. 블룸버그와 마켓위치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48.2와 48.0이었음. 이 지수는 50을 기준점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뜻함.

제목	주요 내용
공장 주문 3개월째 증가	미국의 6월 공장주문이 0.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0.9% 감소였음. 내구재 주문이 2.2% 감소하며 예비치 2.5% 감소보다 감소폭이 완화되었음. 비내구재 주문은 2.7% 증가했고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장주문은 2.3% 늘었음.
골드만삭스, 美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 상향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1%에서 3%로 상향했음.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된 2분기 GDP 증가율이 -1%로 당초 예상보다 호전됐고, 기업재고가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해외투자 81억 弗 '반토막'...3년래 최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81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174억8,000만달러)에 비해 53.6% 감소. 이는 지난 2006년 상반기 74억2,000만달러 이후 3년만에 최저치. 재정부 측은 "투자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며 전체 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자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임대업 투자가 줄었고, 중국의 경우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 금융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설명.
OECD 6월 물가 0.1%↓...한국 8번째로 높아	5일 OECD에 따르면 6월 회원국들의 평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하락. 하지만 우리나라는 2.0% 상승하며, 30 개국가운데 8 번째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OECD는 "이같은 소비자물가 하락세는 지난해 여름 급등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6월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유가 급등의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밝혔음.
수입차 7월 판매 4,037대...전월비 40% `뚝`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7월 한달간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4,037대를 기록, 전월대비 40.7% 급감했다고 밝혔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던 지난 2월(3,663대) 이후 5개월래 최저치. 브랜드별로는 BMW가 80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스바겐 503대, 아우디 460대, 렉서스 356대, 혼다 279대, 포드 275대 등의 순이었음. 이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된데다 일부 브랜드의 재고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